한국 신장학의 과거 · 현재 및 미래의 조망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김 명 재

한국 신장학회 창립 20주년을 마지 하면서 신장학회로부터 한국 신장학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개괄적 조망을 부탁 받고 감히 이 글을 쓰게 된 것은 본인으로서는 큰 영광이며 또한 역사에 대한 언급이 될 것이므로 무척 조심스러운 심정임을 우선 말씀드리고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기록과 기억의 착오는 이 글을 읽으신 후 지적하여 주시면 차후 다시 보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정정할 예정이니 많은 협조를 바란다.

1995년 발행된 1949년에서 1994년까지 대한내과학회지 색인집을 보면 장경(이화의대)이 발표한 "급성신염의 최근 치료 동향"이라는 종설이 1958년 대한내과학회지 2권 1호 23쪽에 실린 것이 최초의 신장 관계 문헌으로 생각된다. 1996년 10월에 간행된 대한내과학회 50년사에 수록된 1947년부터의 내과학회 정기학술대회 초록집을 보면 신장학 계통의 발표로는 1949년 제 3차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신장 질환의 임상 통계적 관찰"[전영탁, 김교명 서울의대]이 최초로 기록된 신장학 계통의 연제로 생각되고 순환기 연구로 같은 학술 대회에서 발표된 서순규, 이동렬[서울의대]의 "이뇨와 말초 혈중 Na량 변동"이라는 연제도 보인다.

그 후 1955년에 개최된 제 7차 내과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전영택(이화의대), 김교명(경전병원)이 발표한 "정상 한국인의 내인성 creatinine clearance에 대하여"라는 연제가 보이는데 이로 보아 1955년 이전에 실질적 의미의 신장학 연구에 헌신한 분들로 전영택, 김교명 등의 이름이 보인다.

그 후 신장학 관련 연제는 매년 하나도 보이지 않다가 1959년 제 11차 정기학술대회에 조순규, 박은보, 전영택(이화의대)의 "Acetazolamide가 정상 성인의 creatinine clearance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제가 보이고, 김성진(서울의대), 설규동(서울적십자병원)의 "Aminophylline의 신기능 및 전해질 배설에 대한 작용" 및 김성진(서울의대)의 "울혈성 심부전시의 신혈행 역학에 대하여"라는 연제가 보인다.

1960년 제 12차 정기학술대회에는 83개의 발표연제중 4개의 신장관련 연제가 보이는데 최초로 "성인 nephrotic syndrome에 대한 prednisolone의 치료성적"(박종갑, 국경-전남의대) 및 "acute renal failure에 관한 임상적 고찰"(민병석-카톨릭의대, 차경배, 김백년-연세의대)과 함께 경북의대 석영관의 "신침생검"이라는 연제가 보이는데 이 연제는 종설인지 원저인지 발표된 논문을 찾을 수 없어 그 성격을 알기어려우나 최초의 "신침생검" 관련 연제로 발견된다. 또한 연세의대의 조광현, 서정삼, 이수익은" 급성 중독성 신부전 치료에 있어서 thoracic duct drainage의 시도"라는 연제를 발표하고 있다.

그 후 1962년의 14차 내과학회 정기학술대회에는 77편의 연제중 국립의료원에 있던 Dr. Bent Gullberg의 "renal damage and hypertension after toxemia of pregnancy - It's treatment and prevention" 이라는 특강이 있었고 3개의 연제가 유행성 출혈열과 관계된 연제였다.

1965년 17차 내과학회에 이르러 "네프로틱 신드롬"이 김종설에 의해 숙제 보고되었고 95개의 일반연제중 10개의 신장 관계 연제가 보이는데 그 중 조종섭(수도육군병원)의 "신침생검에서 본 비현성 신염성 고혈압의 임상병리학적 연구"와 김인수, 김길자, 이태홍의 "신생검의 경험"이라는 연제가 보인다. 따라서 이 무렵이 국립의료원과 육군병원에서 신생검이 실시된 시기로 추정된다.

논문 형태로 발견되는 최초의 신생검 관계논문은 1975년 최진수, 김원동, 이정상, 김명재, 김도진, 이문호, 김용일(서울의대)의 "경피적 신생검 250예에 대한 고찰"(내과학회잡지 18권 5호 391페이지)이며 서울의대에서는 1966년 김명재에 의해 최초로 경피적 신생검이 시도되었다.

이후 1966년에는 104연제중 8연제, 1967년에는 121연제중 4연제, 1968년에는 86연제중 5연제, 1969년에는 117연제중 10연제, 1970년에는 127연제중 8연제, 1971년에는 128연제중 7연제, 1972년에는 151연제중 6연제, 1973년에는 175연제중 15연제, 1974년에는 160연제중 6연제 등이 신장과 관련된것들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신장학 연구가 극히 적었음을 알수 있다.

1965년에는 김도진, 이태실, 이영우, 강태중, 이장규, 이문호(서울의대) 등이 "I^{131}-Hippuran을 사용한 Renogram의 임상적 고찰"에서 Renogram을 최초로 보고하였다. 김성진, 오정환, 백성기의 "고혈압 환자에서의 사구체여과치 및 신생검에 대한 장기적 관찰" 이란 연제가 있고 가톨릭의대 박찬수, 이광학, 김희진, 변지선, 김기환, 민병석의 "급성신부전의 임상적 고찰" 이라는 연제가 최초로 급성신부전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또한 민병석(가톨릭의대)의 "혈청알부민 kinetics"라는 기초과학적인 연제도 최초로 보이기 시작한다.

1966년 18차 내과학회 학술대회에서는 박찬수, 이태홍이 "요독증 환자에서의 복막투석", 홍순철, 임철재, 이만희, 유환무(대구동산병원)의 "복막염에 peritoneal dialysis 한 예" 등이 발표되어 처음으로 복막투석이 소개되고 있으며, 황위현, 김주탁, 김정국, 윤기윤, 안명훈, 문병욱, 이태홍 등의 "신부전에 대한 인공신장기의 임상적고찰" 이라는 혈액투석 연제가 처음 보인다.

1968년 20차 대회에는 김명재, 이문호(서울의대)의 "가토를 이용한 radiation nephritis의 실험적 연구"가 발표되고 있는데 국내 최초의 experimental glomerular disease의 보고로 보인다. 이 해에 발표된 6개의 신장관계 연제중 5연제가 이문호 교수의 지도를 받은 서울의대의 연구논문으로 이정상의 "신성빈혈에 대한 임상적고찰" 김명재의 "각종 신질환에서의 renogram과 신침생검 소견의 비교", 최근출의 "급성신성빈혈의 실험적 연구" 등이 보인다.

1969년에 발표된 10개의 신장관계 논문중 6개가 가톨릭의대, 2개가 서울의대, 1개가 연세의대, 1개가 국립의료원, 1개가 경북의대에서 발표되었다. 김신걸(가톨릭의대)의 "만성신장염 환자에 대한 식이요법의 고찰", 김부성 등의 "신이식수술(5예) 전후의 내과적 문제" 등 연제는 최초의 신이식 보고이며 김희백, 정준혁, 방병기, 정규원, 최규한, 김부성, 고용복, 김신걸, 민병석(가톨릭의대)의 "만성신부전 환자 21예에 대한 혈액투석 및 복막투석의 경험 1) 및 2)" 보고와 정준호, 김학중(국립의료원)의 "만성신부전 환자의 혈액투석(44회) 전후의 혈청전해질 및 심전도 변화" 등이 발표되면서 최초로 "만성신부전" 이란 용어가 보이기 시작한다. 또한 연세의대 배원훈, 이대연의 "급만성신부전증에 대한 복막투석요법" 대구동산병원의 서덕수, 배성호, 전명흡, 이만희, 도상희 등의 "Kolff의 4코일 인공신장기의 임상적 고찰(속보)" 등이 보고된 것으로 보아 일부이지만 복막 및 혈액투석이 활발히 시행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겠다. 그러나 1948년부터 1969년 까지는 신장학이 독립적이지 못하고 순환기계의 방계분야로 연구되었고 1969년 이후 서울의대, 가톨릭의대, 연세의대, 국립의료원, 이화의대, 수도의대, 수도육군병원, 경북의대 등에서 서서히 전문적인 분야로 성장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60년대 말에 이르러 가톨릭의대에서 투석, 이식 등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면서 민병석을 중심으로 강력한 신장연구 그룹이 형성되고, 서울의대에서는 김용일, 고광욱, 민헌기, 이문호, 주근원, 이정상 등을 중심으로 신장전문 연구그룹이 태동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75년 12월 주근원, 고광욱, 민병석, 이정상, 정석호, 홍석기, 이호왕, 국영종, 최인준, 김용일 등 몇몇 신장학에 뜻있는 분들이 "신동우회"를 결성한 후 1979년 말까지 23회의 토론회를 가지면서 내과, 소아과, 비뇨기과, 병리학, 약리학, 생리학 등의 교수들이 주동이 되어 학문적 교류를 하면서 한국신장학회 발족의 기초를 다지게 된바 1980년 6월 주근원, 고광욱, 민병석, 박한철, 정석호, 김세경, 최인준, 이상국, 국영종이 발기인이 된 후 1980년 7월 12일 서울대병원 A 강당에서 창립총회가 이루어져 초대회장 주근원, 부회장 고광욱, 민병석이 선임되고 감사 박한철, 학술 정석호, 총무 이정상으로 출범하였는데 이때 창립 발기인은 민병석, 원언식, 방병기, 조규철, 이시래, 오상진, 구자훈, 김현철, 김용일, 민헌기, 이상국, 고광욱, 최 용, 김도진, 이정상 주근원, 윤견일, 최진수, 조 경우, 박한철, 김세경, 홍순국, 김태진, 이희발, 고행일, 원대식, 이대연, 정석호, 김병길, 이재승, 최인준, 국영종, 윤종병 등 33인이었다. 초기 평의원은 31명이었고 창립총회 시발기인에서 빠졌던 강영준, 나하연, 김명재, 한대석, 강종명, 유석희, 강성귀, 김형규 등은 초기부터 참여하였다.

1981년 5월에는 제 1차 대한신장학회 학술대회가

개최되었고 1982년 5월에 제 2차학술 대회가 개최되고 1982년 7월 30일 대한신장학회잡지(The Korean Journal of Nephrology) 제 1권 1호가 발간되었는데 총 65페이지였고 10개의 논문과 제 2차 학술대회 초록이 게재되었다. 창간 2년째인 1983년에는 2호, 3호 2권이 발간되고 제 3호는 민병석 교수 추모호로 발간되었다. 인산 민명석 교수는 대통령 주치의로 미얀마의 아웅산묘지 사건으로 순국하였다. 1988년까지는 매년 두 번씩 발간되었고, 1985년 부록 I호, 1987년 부록 II호, 1988년에는 부록 III호가 발간되었고, 이해에 고광욱의 주관하에 박한철, 김용일, 김병길, 김명재, 이희발, 방병기, 한대석, 강종명의 노력으로 최초로 "신장학 용어집"이 간행되었고 그 후 "신장학 용어집" 개정증보판이 1996년 5월 김명재, 강종명, 김 진, 김교순, 김형규, 이호영, 조병수에 의해 발간되었다.

1989년에는 3권이 발간되고 부록 IV호가 발간되었으며 이 해에 대한신장학회가 공모하여 채택된 강성귀가 도안한 대한신장학회의 "마크"를 표지 중앙에 두고 서예가에게 부탁하여 받은 궁체의 한글로 "대한신장학회지"로 제 8권 제 1호부터 표지가 바뀌게 되었다. 이 때 잡지 한권은 보통 260페이지 정도로 발간되어 회원들의 연구발표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1990년부터 1997년까지 "대한신장학회지"는 계간으로 매년 4권이 발간되었고, 1990년의 18호는 대한신장학회 창립 10주년 기념호로 간행되었다. 이 때 김병길의 노력으로 박한철이 주축이된 팀이 편찬한 "환자를 위한 만성신부전의 지식"이란 환자용 단행본과 "신장학 분야 논문집 - 저자 및 주제" 색인을 발간하였다. 1991년에는 부록 V호를 발행하고 제 24호는 고

Table 1. 학회지 발간 및 간행사업(교과서 포함)

년 도	출판물	발행호수	특별호	도서간행
1982	대한신장학회지	1호		
1983	대한신장학회지	2, 3호	민병석 교수 추모호(3호)	
1984	대한신장학회지	4, 5호		
1985	대한신장학회지	6, 7호, 부록 I		
1986	대한신장학회지	8, 9호		
1987	대한신장학회지	10, 11호, 부록 II		신장학 용어집
1988	대한신장학회지	12, 13호, 부록 III		
1989	대한신장학회지	14, 15, 16호, 부록 IV		
1990	대한신장학회지	17, 18. 19, 20호	대한신장학회 창립 10주년 기념호(18호)	환자를 위한 만성신부전의 지식 신장학분야 논문집 (저자 및 주제 색인)
1991	대한신장학회지	21, 22, 23, 24호, 부록 V	고광욱 교수 정년퇴임 (기념호 24호)	회원명부
1992	대한신장학회지	25, 26, 27, 28호, 부록 VI		회원명부
1993	대한신장학회지	29, 30, 21, 32호, 부록 VII		
1994	대한신장학회지	33, 34, 35, 36호, 부록 VIII		
1995	대한신장학회지	37, 38, 39, 40호 제 15차 춘계학술대회 초록집		
1996	대한신장학회지	41, 42, 43, 44호 제 16차 춘계·추계학술대회 초록집		신장학 용어집 회원명부
1997	대한신장학회지	45, 46, 47, 48호 제 17차 춘계·추계학술대회 초록집		
1998	대한신장학회지	49, 50, 51, 52, 53, 54호 제 18차 춘계학술대회 초록집	梧濟 고광욱 교수 追慕集(50호)	
1999	대한신장학회지	55, 56, 57, 58, 59, 60호 제 19차 춘계·추계학술대회 초록집 부록 1, 3호		회원명부
2000	대한신장학회지	61, 62호	박한철교수 정년퇴임 기념호(62호)	

광욱 교수 정년퇴임 기념호로 발간하였다(Table 1).

이 해 5월 25일에 제 1차 회원 명부가 발간되고 여기에 내과, 외과, 비뇨기과, 병리과, 약리과, 생리학의 전문의들로 총 192명의 회원 명단이 수록되었다. 그러나 학술대회 등록회원수는 300명에 달했다.

1995년부터는 연간 4권의 발간 외에 춘계 및 추계 학술대회 초록집을 별도로 발행하였고 1998년 부터는 격월간으로 연 6권을 발간하고 있으며 권당 370페이지 내외의 알찬 잡지로 발전한 것은 회세의 꾸준한 성장과 회원들의 활발한 연구저술 발표를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잡지의 표지는 1995년 5월의 37호부터 지금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학술대회는 1983년부터 춘·추계 학술대회로 년 2회 개최하고 있다. 추계학회는 해외연구귀국보고와 함께 격년으로 CAPD와 Hemodialysis workshop을 번갈아 하는 형식을 갖추고, 매년보고되는 인산(민병석 교수) 기념 투석 및 등록 현황보고는 고광욱, 박한철, 김병길, 이정상, 이회발, 한대석, 방병기, 김명재 등이 유럽 등록양식을 수정하여 우리 실정에 맞도록 형식을 만들기로 정하고 민병석 교수를 추모하며 인산기념등록 사업으로 하자는 이정상의 제의로 가톨릭의대 방병기가 주관하도록 결정되어 1985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이제는 전산화가 완성되어 매우 귀중한 국가적 자료가 되고 있으며 아세아에서는 일본보다도 앞선 국가적사업을 우리학회가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자랑스러운 사업이 되고 있다. 이 registry-format-registry 첫 보고는 방병기에 의해 1985년 5월 4일 첫 발표된 후 혈액투석, CAPD 및 이식전반을 보고하다가 1985년부터 이회발이 CAPD registry는 분리하여 보고하고 있다.

이렇게 체계화된 registery format 이전에도 카톨릭의대에서는 1977년 김호연 등이 투석현황을 발표하였고 1976년 1월 1일부터 1980년 12월 말까지의 당시 전국 14개 병원 투석요법 현황을 1981년 제 1차 대한신장학회에서 민병석, 방병기가 보고하고 그 내용이 1982년 대한신장학회잡지 창간호에 계재되고 있는데 현재의 환자수, 이식수 및 투석센타의 수 등과 비교해 보면 격세지감이 있다. 그후 방병기는 대한신장학회지 1985년 제 4권 1호에 1981년부터 1984년까지의 혈액투석의 현황을 보고한 바 있다. 먼저 고찰한 바와 같이 1960년대 중반부터 산발적인 혈액투석과 간헐적 복막투석에 대한 보고가 있어왔지만 1970년 초부터 서울의대, 연세의대, 한양의대, 경희의대, 중앙의대 등에 인공신장실이 확산되기 시작하여 1970년대 후반부터 의료보험의 확대 실시와 비례하여 혈액투석은 기하급수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실시 하기에 이르렀고 CAPD는 녹십자의료공업의 고영환 사장의 장비공급을 가능케했던 이회발(당시 경희의대)의 노력으로 1981년 우리나라에서 처음 실시한 후 전체 투석 환자의 약 23%를 차지할 정도로 확대 실시된 바 이는 이회발의 노력이 크다.

신장이식은 1969년 3월 25일 가톨릭의대에서 이용각, 민병석, 이종훈, 김신걸 등 이식팀이 최초로 성공적으로 실시하여 대한의학협회지 1969년 12월호 983페이지에 보고한 이래 1978년 경부터 서울의대, 연세의대, 한양의대, 경희의대, 고신의대 등에서 활발히 진행되어 일상의 치료로 발전하여 현재는 매년 1,000명 가까운 신장이식이 전국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2000년 2월 9일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뇌사 등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안이 제정시행되고 전국을 4개지역으로 분할 관리하는 KONOS(한국장기 배분 위원회)가 국립의료원에 설치되어 뇌사가 합법화되고 있다.

1989년 춘계학술대회때부터 춘계학술대회의 초록은 국문과 영문을 병기하여 받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1988년도에 박한철 교수의 노력에 의하여 국제 신장학회 잡지인 the Kidney International지에 우리 학회의 초록집이 1989년부터 계재되기로 되었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우리는 국제신장학회의 공식적인 회원국이 된셈이다. 국제신장학회는 2년마다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개최시마다 북미(ASN), 남미, 아세아태평양, 유럽 및 아프리카 신장학회와 공동으로 World Congress of Nephrology를 개최하고 있다. 2005년에는 Asian Pacific Society of Nephrology(APSN)와 함께 Singapore에서 World Congress가 개최된다. APSN은 1979년 동경에서 발족되었고 현재 정회원국은 한국을 포함 16개국이며 우리나라는 1983년 Singapore에서 개최된 제 3차 APCN에서 가입하였으며 그 당시는 이사회의 형태가 성립되지 않아 고광욱, 김병길, 김명재 등이 이사회때 참가하다가 1990년부터 각국의 학회인준을 받은 Council을 보내도록 되어 김병길이 1991년부터 1997년까지 Council을 하였고 1993년 부터는 1국 2 council제가 되어 김명재가 추가되었다. Council의 임기는 3년이고 1회 연임할 수 있으므로 1997년 이후 현재는 강성귀가 제 2차 3년 임기로 council로 있고 2000년 3월 대만에서 방병기가 김명재 후임의 council이 되었다. 김명재는

APSN의 president-elect로 1997년 Sydney에서 선임되고, 2000년 3월 대만에서 APSN 회장이 되어 3년의 임기를 맞게 되었다. ISN은 세계를 5개 지역으로 나누어 그 지역 신장학회원 협력하고 있으므로 한국의 젊은 신장학도들이 ISN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APSN을 통하는 것이 가장 빠른길로 생각되므로 우리회원들도 APSN에 가입하고 적극 참여하여 국제적 도약의 발판으로 삼기를 바란다.

대한신장학회 춘계학회에는 매회 1-2명의 외국교수를 초빙하여 특강을 들어왔다.

그간 신장학회 주관으로 신장학회 회원이 참가하는 국제학회가 4회 있었는데 앞으로 2001년 11월에는 경주에서 International Symposium on IgA Nephropathy가(조직위원장 : 김명재, 사무총장 : 이태원)가 다섯 번째 국제학술대회로 준비중에 있다.

첫 번째 국제학회는 1990년 7월 20일부터 24일까지 경주에서 제 11차 International Congress of Nephrology(ISN)의 Satellite Symposium으로 주제는 "International Symposium on Virus related Renal Diseases"였고 경주 코오롱 호텔에서 개최되었는데 조직위원장은 고광욱 사무총장은 박한철이었으며 cytomegalovirus AIDS, HBV-related, HFRS 등의 강의와 토의가 있었다.

두 번째 국제학회는 1992년 5월 17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쉐라톤 워커힐 호텔에서 개최되었던 제 9차 Asian Colloquium in Nephrology(ACN)로 조직위원장에 김병길, 사무총장으로 김명재가 일했고 회원 전체의 협조로 개최되었다. 이 대회에는 세계 각국의 유명한 Nephrologist가 40여명 참석하고 국내인사도 15명이 연사로 참가하고 4일간 국내외에서 약 800명이 참가하여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는 바 학술위원장이던 한대석 교수의 노력이 크게 공헌하였다.

세 번째는 1995년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경주현대 호텔에서 개최된 제 13차 International Society of Blood Purification(ISBP) 대회로 박한철이 조직위원장 이희발이 사무총장으로 개최되어 매우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네 번째는 1998년 8월 23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쉐라톤워커힐 호텔에서 개최된 제 8차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Peritoneal Dialysis(ISPD)로 이희발이 조직위원장, 한대석이 사무총장, 박민선이 Assistant Secretary로 수고하였는데 총 52개국에서 1,009명이 참가하여 명실공히 국제적 규모의 학회로서 대성공을 거둔 학회로 평가되고 있다.

이런 국제학회의 유치는 국제적인 학문의 흐름을 단시간에 일목요연하게 국내의 젊은 신장학도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신장학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생각된다.

회원 명부는 1991년 처음 발간한 후 1992년, 1996년 및 1999년 3회 증보개정 발간되었다. 1991년 판

Table 2. 대한신장학회 역대회장 및 이사장

년 도 별	회 장		이 사 장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1980-1983	주근원	서울의대 비뇨기과		
1983-1986	고광욱	서울의대 소아과		
1986-1988	박한철	한양의대 내과		
1988-1989	국영종	전남의대 약리학교실	김병길	연세의대 소아과
1989-1990	조규철	가톨릭의대 약리학교실		
1990-1991	최인준	연세의대 병리학교실	김명재	경희의대 내과
1991-1992	김용일	서울의대 병리학교실		
1992-1993	윤종병	부산의대 비뇨기과	이희발	순천향의대 내과
1993-1994	강영준	전남의대 내과		
1994-1995	구자훈	경북의대 소아과	홍창기	울산의대 내과
1995-1996	나하연	부산의대 비뇨기과		
1996-1997	강성귀	전북의대 내과	이정상	서울의대 내과
1997-1998	이시래	부산봉생병원 내과		
1998-1999	이재승	연세의대 소아과	방병기	가톨릭의대 내과
1999-2000년 3월 현재	최 용	서울의대 소아과		

에는 192명이 수록된데 비해 1999년에는 408명이 수록될 정도로 회원수가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고 있다.

대한내과학회에서는 1992년 1월 29일 내과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가 발의되어 초대위원장에 김정용, 2대 위원장을 김부성이 역임하고 부위원장에 김노경이 취임하여 소화기, 순환기, 호흡기, 내분비, 신장, 혈액종양, 감염, 알레르기, 류마티스 등 9개 분과전문의를 두기로 하고 이때 신장분과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김명재가 지명되어 참여하여 1992년 10월 82명의 신장내과분과 전문의가 내과 분과전문의 자격을 내과학회로부터 인정받았고, 1997년 10월 제 1차 인정증 교체시에는 193명으로 증가되었는데 현재 내과 신장내과 분과전문의는 내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로서 1년간 신장학을 분과전문의 밑에서 수련하고 1년의 보습기

Table 3. 역대임원명단

1988-1990		1996-1998	
이 사 장	김병길(연세대 소아과)	이 사 장	이정상(서울의대 내과)
총무이사	한대석(연세대 내과)	감 사	방병기(가톨릭대 내과)
학술이사	이정상(서울대 내과)	총무이사	한진석(서울의대 내과)
간행이사	김명재(경희대 내과)	재무이사	윤견일(이화대 내과)
재무이사	윤견일	학술이사	박정식(울산대 내과)
수련이사	강종명(한양대 내과)	협연이사	한대석(연세대 내과)
감 사	박한철(한양대 내과)	간행이사	황승덕(순천향대 내과)
1990-1992		수련교육이사	최기철(전남대 내과)
이 사 장	김명재(경희대 내과)	등록이사	최의진(가톨릭대 내과)
총무이사	조병수(경희대 소아과)	보험법제이사	이호영(연세대 내과)
학술이사	한대석(연세대 내과)	윤리홍보이사	김형규(고려대 내과)
간행이사	김성권(서울대 내과)	일반이사	고행일(인제대 내과)
재무이사	윤견일(이화대 내과)		신영태(충남대 내과)
수련이사	강종명(한양대 내과)		박찬현(한양대 내과)
보험이사	유석희(중앙대 내과)		조동규(경복대 내과)
윤리이사	김형규(고려대 내과)		임천규(경희대 내과)
감 사	이희발(순천향대 내과)		
1992-1994		1998-2000	
이 사 장	이희발(순천향대 내과)	이 사 장	방병기(가톨릭대 내과)
총무이사	강종명(한양대 내과)	감 사	김현철(계명대 내과)
학술이사	최 용(서울대 소아과)	총무이사	김용수(가톨릭대 내과)
간행이사	한대석(연세대 내과)	재무이사	윤견일(이화대 내과)
수련이사	강성귀(전북대 내과)	학술이사	이호열(연세대 내과)
등록이사	방병기(가톨릭대 내과)	협연이사	김성권(서울대 내과)
보험이사	김형규(고려대 내과)	간행이사	임천규(경희대 내과)
윤리이사	김현철(계명대 내과)	수련교육이사	김호중(한양대 내과)
재무이사	이재승(연세대 소아과)	등록이사	최의진(가톨릭대 내과)
감 사	홍창기(울산대 내과)	보험법제이사	조병수(경희대 소아과)
1994-1996		윤리홍보이사	김형규(고려대 내과)
이 사 장	홍창기(울산대 내과)	일반이사	오하영(성균관대 내과)
감 사	이정상(서울대 내과)		윤영석(윤영석 내과의원)
총무이사	박정식(울산대 내과)		조동규(경북대 내과)
재무이사	윤견일(이화의대 내과)		홍세용(순천향의대 내과)
학술이사	방병기(가톨릭대 내과)		
협연이사	한 대석(연세대 내과)		
간행이사	한진석(서울대 내과)		
수련이사	신영태(충남대 내과)		
등록이사	윤영석(가톨릭대 내과)		
보험이사	정석호(정석호 내과의원)		
윤리이사	김현철(계명대 내과)		
홍보이사	유석희(중앙대 내과)		
일반이사	강성귀(전북대 내과)		
	최 용(서울대 소아과)		
	김성권(서울대 내과)		
	표희정(고려대 내과)		
	강종명(한양대 내과)		

간을 거쳐 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그 후 방병기를 거쳐 현재는 김성권이 내과학회의 신장분과 전문의 관리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1999년 11월 30일에는 신장학회에서 신장 투석 전문의 자격인정증을 적격자에게 발급하였는데 현재 219명이 자격을 인정받고 인정증을 받았다. 이러한 제도는 다소 무질서한 현재의 투석치료 상황에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고 환자에게 좀더 신뢰성있는 치료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신장학회 20년의 눈부신 발전과정을 두서없이 회고하면서 선배님들이 선견지명이 오늘의 대한신장학회가 있도록 초석이 되었음을 감사의 마음으로 회고하고 그간 학회발전에 헌신적 노력을 하신 임원 그리고 모든 회원들의 사랑과 참여가 발전의 원동력이었다고 생각된다.

1999년에는 신장관계 개원의 협의회가 윤영석 등의 노력으로 발족되었고 현재 이사장은 한 민, 회장은 정건용이 맡고 있다. 1999년 5월에는 방병기, 김용수, 강종명, 박수길, 조동규, 김기현, 박성배, 박성광, 김 향, 안규리, 이태원 등이 내과계 이식연구회를 발족 수차 월례 집담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초대 회장은 김명재이며 2000년 7월에는 첫 학술심포지움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현재 방병기의 주도하에 한국 kidney foundation 설립을 위한 노력이 거의 결실을 맺을 단계에 온것도 기쁜일이다.

현재 학회는 이사장 중심제로 이사장의 임기는 2년이고 현재의 이사장은 방병기로 6대 이사장이다. 이사장은 총무와 재무, 학술, 간행, 보험 등 몇 부서의 이사를 지명 이사회를 결성 하여 회무를 집행하고 결정하며 이사회 결정은 평의원회의 인준을 요하게 되어있다. 1980년부터 1988년 까지는 회장중심제였고 1988년부터 이사장제가 도입되었다.

초대회장은 주근원이 1980년에서 1983년까지 취임

Table 4. 연구비 종류 및 상금

녹십자의료공업학술상	1명	500만원
Novartis 연구비(신장이식분야)	1명	700만원
Baxter 연구비(신장분야)	1명	1,000만원
FMC 연구비(투석치료)	1명	각 1,000만원
MSD 연구비 (lenin-angiotensin, Losartan)	2명	각 1,000만원
종근당 연구비(신장이식)	1인	1,000만원
GAMBRO 연구비(신장분야)	2인	각 1,000만원
우수초록상 2편(구연/포스터)		각 50만원
우수논문상 1편		50만원

신장학회 발전의 초석을 놓았고 이어 고광욱이 1983년에서 1986년까지는 2대 회장으로서 지금의 신장학회의 학회형식, 잡지, 용어집, kidney international의 초록게재, ESRD registry APSN, 가입 등 중요한 업적들을 남기었다. 3대는 1986년부터 1988년까지 박한철이 회무를 이끌었다. 1988년부터 이사장제가 도입되어 이사장 임기가 2년이 되고 회장임기는 1년으로 정해져서 초대 이사장에 김병길, 4대 회장이며 이사장제의 첫 회장으로 국영종이 취임하였다. 역대 이사장, 회장 임원의 명단은 Table 2에 정리하였다. 평의원회는 대한신장학회 창립당시는 31명이었고 현

Table 5. 대한신장학회 평의원

No	성 명	No	성 명	No	성 명
1	강성귀	36	박성배	71	이현순
2	강영준	37	박수길	72	이호영
3	강종명	38	박양생	73	이희발
4	고철우	39	박용훈	74	임천규
5	고행일	40	박정식	75	장윤식
6	곽진영	41	박찬현	76	전건웅
7	구완서	42	박한철	77	정석호
8	구자훈	43	방병기	78	정순동
9	국영종	44	서상렬	79	정우영
10	김 진	45	신상구	80	정해일
11	김경수	46	신영태	81	조규철
12	김교순	47	심상인	82	조동규
13	김기현	48	오하영	83	조병수
14	김도진	49	원남희	84	주근원
15	김도헌	50	유기환	85	주종수
16	김명재	51	유석희	86	최 용
17	김문재	52	윤견일	87	최규헌
18	김병길	53	윤경우	88	최기철
19	김석영	54	윤성철	89	최의진
20	김성권	55	윤영석	90	최인준
21	김순배	56	윤종병	91	표희정
22	김열자	57	윤진한	92	하성규
23	김용근	58	이강욱	93	한대석
24	김용수	59	이대연	94	한진석
25	김용일	60	이대열	95	허만하
26	김용진	61	이상구	96	홍세용
27	김현철	62	이상국	97	홍창기
28	김형규	63	이승주	98	황승덕
29	김호중	64	이시래		
30	나하연	65	이익준		
31	노정우	66	이재승		
32	문 철	67	이정상		
33	박문향	68	이종국		
34	박상은	69	이종은		
35	박성광	70	이태원		

재는 9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역대 임원은 Table 3에 기록하였다.

또한 1990년에 창립된 호남지회를 효시로 부산경남지회, 대구경북지회, 서울지회, 충청지회 등이 지역 신장학의 구심체로 월례집담회 및 학술모임들을 활발히 하는것도 대한신장학회의 특징이며 자랑이라 하겠다. 또한 신장학회는 여러 가지 상과 연구기금을 두어 회원들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있는바 그 내용도 별도의 Table 4에 정리하였다.

또 1992년 보령제약 김승호 회장의 전적인 후원으로 제 9차 ACN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후 남은 잉여금 1억원을 토대로 매년 영어로 발표한 논문저자에게 계재비를 지급해오는것도 정보의 국제화라는 큰 추세에 미리 대처한 것으로 본다.

대한신장학회의 발전에는 협력사들의 도움이 컸음을 잊을수 없는데 초기의 녹십자의료공업, 현대약품, 코오롱, 보령제약, 산도즈제약, 박스타, 코오브, 갬브로 등과 중외제약, 제일제당, 종근당 외에도 여러 협력사들의 지원이 발전에 밑거름이 되었고 지금도 큰 힘이 되고 있음을 볼 때 감사의 마음 금할길 없다.

의학 특히 신장학은 매우 빠른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그 paradigm 자체가 변해가는 추세인 만큼 꾸준히 노력하고 국제적 주류에서 탈락되지 않고 주도적 역할을 하는 많은 미래의 신장학자들이 배출되어 대한신장학회가 더욱 높은 수준으로 무궁한 발전이 지속되기를 기원한다.

참 고 문 헌

1) 주근원 : 신장학 연구의 매체로서(대한신장학회잡지 창간사). *대한신장학회잡지* 1:3, 1992
2) 고광욱 : 한국 신학의 여명기 - 대한신장학회 10년사 -. 회원명부(1):p5, 대한신장학회, 1991
3) Myung-Jae Kim : Nephrology and renal replacement therapy in South Korea : A brief report on the KSN and KST. *Nephrol Dial Transpl* 11: 979, 1996
4) 대한내과학회지 색인집(1949-1994), 대한내과학회, 1995
5) 대한내과학회 50년사. 대한내과학회, 1996
6) 내과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동시행규칙, 개정판, 대한내과학회 내과분과 전문의관리위원회, 1995